

제목	[문학반] 문화연구자의 문학 읽기		
개요	문학은 작가의 순수한 역량과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고정적/배타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당대 사회의 가치관과 갈등의 반영물인 동시에 담론 생산에 관여하는 제도이자 미디어로 기능할 수 있다. 문학은 지배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할 수도 있지만 그에 저항하거나 대안적인 담론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영화나 방송프로그램과 함께 문화연구자가 주목할 만한 주요한 대중문화텍스트로서 주목받아 왔다. 연합신세G 문학과문화연구반(가칭)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매주 다른 키워드를 통해 국내 문학작품들과 관련 비평 텍스트 및 연구물들을 읽고, '문화연구자로서 문학작품 읽기/비평하기'를 시도해 볼 것이다.		
이름이	채태준, 박중수		
주차별 내용			
	내용	텍스트	Additional
1주차	<82년생 김지영> 이후의 문학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오혜진, 2018 조강석, 2017 소영현 외, 2019
2주차	청년세대/청년세대를 통한 재현 :1	장강명, <표백>	
3주차	청년세대/청년세대를 통한 재현 :2	김애란, <성탄특선> 김애란, <자오선을 지나가며> 김애란, <달려라 아버지>	
4주차	새로운 종말서사와 세대구도	최진영, <해가지는 곳으로> 장은진, <날짜 없음>	
5주차	학문후속세대의 재현 : 2010년 이후 한국 단편소설에서 시간강사와 대학원생의 재현에 관하여	김애란, <풍경의 쓸모> 박지리, <양춘단대학탐방기> 최은영, <한지와 영주> 김혜진, <딸에 대하여>	
텍스트 리스트			
<p>조강석, 메시지의 전경화와 소설의 '실효성' - 정치적·윤리적 올바름과 문학의 관계에 대한 단상. <문장웹진> 2017년 4월</p> <p>오혜진, 비평의 백래시와 '새로운 페미니스트 서사'의 도래. <21세기문학> 2018년 여름.</p> <p>김미정, 흔들리는 재현·대의의 시간 - 2017년 한국소설의 안팎, <문학들> 2017년 겨울.</p> <p>심진경, 새로운 페미니즘서사의 정치학을 위하여, <창작과비평> 2017년 겨울</p> <p>황현경, 소설이라는 형식, <문학동네> 2018년 봄</p> <p>복도훈, 유머로서의 비평 - 축제, 진혼, 상처를 무대화한 비평의 10년을 되돌아보기, <문학과 사회하이픈> 2018년 봄,</p> <p>이은지, 문학은 정치적으로 올바라야 하는가, 웹<문학3></p> <p>복도훈,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적인 단상들, <문장웹진>, 2017년 5월</p> <p>신새별, 절망을 이야기하는 소설의 두 가지 행로 - 김애란과 김사과에 주목하여, 문화일보 2012년 1월 1일.</p> <p>신새별, 프레카리아트 페미니스트 - 조남주, 강화길 소설에 주목하여, <문장웹진>, 2017년 1월.</p> <p>오혜진, 쿼서서사와 아포칼립스적 상상력 - 최진영의 『해가 지는 곳으로』. <지극히 문학적인 취향>. 2019</p> <p>소영현 외 12명, <#문학은_위험하다> 민음의 비평, 2019</p> <p>장은진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2018</p> <p>오혜진, <지극히 문학적인 취향> 오월의 봄, 2019</p> <p>염동규, 마지막 몸부림, 대학원생 문제의 서사화가 보여준 가능성과 한계 -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의 사례, <담론과 쟁점> 통권 3호, 2017.</p>			